

영어어문교육 9권 1호 2003년 여름

TOEFL, TOEIC, TEPS 시험 점수와 대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 연구*

이 현 우

(인하대학교)

이 소 영

(인하대학교)

Lee, Hyunoo & Lee, Soyoung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ores of TOEFL, TOEIC and TEPS, and college academic performanc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1), 153-171.

The scores of TOEFL, TOEIC, and TEPS have been increasingly used for many purposes in Korea. In particular, these test scores are being used as a predictor for determining readiness for and success in college work, or as a measure of the testees' overall English proficiency. Nonetheless, studies have rarely proposed that the validity of the test scores is used for either purpose. As a preliminary step to explore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test scores, we collected the scores of TOEFL, TOEIC, and TEPS from thirty students of a university as well as their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s (GPA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test scores and GPAs show that TOEFL will be most likely to have the highest validity coefficient as a predictor for determining success in college work as well as a measure of overall English proficiency. Although this study has a few limitations such as the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their homogeneity as a group, etc., it provides some insight into the use of the three tests for college admissions and measurement of overall English proficiency and suggests need for conducting further validation studies in these areas.

[admission testing/standardized test, 입학 평가/표준화 시험]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언어학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도움말과 평을 주신 김진완, 이재희, 황중배 교수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1. 서론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3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많은 4년제 대학이 어학(영어) 특기자를 TOEFL, TOEIC, 또는 TEPS의 성적을 활용하여 선발하거나 장학생으로 유치하고 있다.¹⁾ 이러한 영어 특기자 선발 방법은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대학 입학 전형이 다양화된 수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영어 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벌써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점수를 활용하여 영어 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타당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들 시험 점수에 의해 입학한 영어 특기자들이 대학 수학에 있어서 타 학생들에 비해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를 보이는지 조사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들 특기자들이 타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인다면 이는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이 입학 전형 자료로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들이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인다면 이는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이 입학 전형 자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교적 손쉬운 타당도 검증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의 공개로 인한 각종 현실적 불이익 등의 이유 때문에 영어 특기자의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가 극히 제한된 소수의 대학에서만 진행되어 왔고, 이렇게 진행된 연구조차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영어 특기자를 대상으로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대신, 일반 대학생의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점수와 대학 수학 능력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의 상관 관계의 결과가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예측 타당도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어도, 본 연구에서 상관 관계가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예측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검증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욱 커지고, 상관 관계가 낮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반대로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인 TOEFL, TOEIC, TEPS가 입학 전형 자료로서 각각 어느 정도의 예측 타당도를 보여줄지에 관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예견된다.

TOEFL, TOEIC, TEPS와 같은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은 대학의 어학 특기생 선발을 위한 입학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선발 시험, 입사 시험, 입사 후 승진

1) 이러한 목적으로 TOEFL을 활용하는 대학은 분교 포함 63개교, TOEIC을 활용하는 대학은 분교 포함 60개교, 그리고 TEPS를 활용하는 대학은 분교 포함 40개교에 이른다.

시험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시험은 TOEFL CBT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해 기능과 관련한 평가 도구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이들 시험이 과연 진정한 영어 구사 능력(듣기 및 읽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까지 포함)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회의와 함께, 이들 시험 가운데 어느 시험이 그래도 영어 구사 능력을 가장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의 TOEFL, TOEIC, TEPS의 언어 기능별 시험 점수와 이들의 대학에서의 영어 관련 교과목 성적 사이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하여, 어느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이 한국 대학생을 위한 영어 능력 평가 도구로 가장 적합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점수와 대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 입학의 전형 자료로서의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타당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 이들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점수와 대학생의 영어 관련 과목 성적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 대학생의 영어 능력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개념 및 그의 평가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소개와 연구 실행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것이 함축하는 바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할 것이다.

II. 연구의 배경

논문의 서두에서 진술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TOEFL, TOEIC, 또는 TEPS가 입학 전형 자료로서 타당한가에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시험 점수를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대학 수학 능력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개관하고, 이러한 개관과 더불어 입학 전형 시, 대학 수학 능력을 국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해 그 방법 혹은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의 타당도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학(영어) 특기자 전형을 위해 현재 우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TOEFL, TOEIC, TEPS의 성격 및 특징을 개관해볼 것이다.

1. 대학 수학 능력의 개념

우리 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간한 보고서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보고 및 분석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 수학 능력이란 “대학에서의 수학에 기초가 되는 공통적인 보편적 학력”(김신영, 구창현, 임형, 박정, 1998, p. 8)으로, “고교에서 계열별(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성취한 학력”(김신영 외 3인, 1998, p. 8)을 의미한다. 전자가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후자는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교육에서 이론 학업 성취 능력을 가리키는 다소 제한적 개념이다. 그러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주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 수학 능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수리·탐구 I, 수리·탐구 II, 외국어라는 네 개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는 것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한편, 우리 나라와 같이 대학 입학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 교육 제도나 상황이 우리 나라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학 수학 능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대학 입학 시험인 SATs(Scholastic Aptitude Tests)는 SAT I과 SAT II로 나뉘는데, SAT I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학 수학 능력이란 “two sets of skills—verbal reasoning and mathematical problem solving—that you need to do college-level in any academic area”이다(*The College Board SAT*, 2003, p. 2). 이 정의에 따르면,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SAT I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학 수학 능력 개념과 앞에서 살펴본 우리 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개념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SAT I 시험의 구성 요소가 우리 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보다는 좀 더 대학 생활에서의 적응과 성패를 좌우하는 보편적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인쇄 매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고 결론을 유도하는 능력,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목표로 되어있다(김신영 외 3인, 1998). 즉 SAT I은 학업 적성 검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SAT I과는 달리 최근 들어 점차 활용 빈도가 커지고 있는 SAT II는 특정 교과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측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내포되어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학업 성취도 평가적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관련성이 적고 일반 학업 적성 검사의 성격이 강한 SAT와는 달리 교과 학업 성취도 검사 성격을 지닌 시험으로 미국의 ACT(American College Testing)가 있다. 대학에서의 수학 준비도 평가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발된 ACT는 영어, 수학, 읽기, 과학 추론의 네 가지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ACT의 개발 전제 사항이나

하위 구성 검사 요소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ACT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대학 수학 능력은 SAT II나 우리 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뜻하는 대학 수학 이전까지의 교과 학업 성취 능력임을 알 수 있다. 즉 대학 수학 과정과 유사한 고교 수학 과정이라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성취했던 지식과 기술의 정도가 바로 대학 수학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경우, 문부성 산하 기구인 대학 입시 센터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이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6개 교과, 31개 과목에 대한 시험으로 학생들은 지원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와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 시험에서 재고자 하는 대학 수학 능력은 우리 나라나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보다는 좀 더 구체적,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수학하게 되는 분야와 관계가 깊은 고등학교 교과목의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과 학업 성취도 검사의 결과로써 대학 수학 능력을 잴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우리 나라나 미국과는 달리 교과 학업 성취 자체를 대학에서 수학할 분야와 관계가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이란 바로 전공 분야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학 수학 능력이란 결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양 및 전공 과목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능력(이현우, 장경숙, 홍영기, 2001)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일반적 수준의 학업 적성 능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의 수학 이전에 학습했던 교과 학업 성취 능력으로 볼 것인지는 대학 입학 시험을 실시하는 나라의 여러 교육적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그 양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대학 입학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 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목적을 지닌 검사 도구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같은 특수한 부차적 목적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대학 수학 능력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 항에서는 이 능력을 실제로 평가하는 검사 혹은 시험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평가 원리인 타당도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의 타당도 분석

신뢰도, 효율성과 더불어 평가의 주요 3대 원리의 하나인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냐의 문제이다(Weir, 1990). 이러한 타당도는 타당도 연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라고 여겨지는 구인 타당도 이외에도 내용 타당도, 준거지향 타당도, 안면 타당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대학 입학 시험과 같은 검사 도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지는 타당도는 준거지향 타당도, 특히 예측 타당도가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미국 내 대표적인 대학 입학 시험인 SAT의 경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치른 SAT 점수가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예측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Bridgeman, McCamley-Jenkins, & Ervin, 2000; Burton & Ramist, 2001; Camera & Echternacht, 2000; Ramist, Lewis, & McCamley-Jenkins, 1993). 이러한 타당도 분석을 통해 대학 입학 시험으로 사용되는 방법 내지는 검사 도구가 얼마만큼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대학 입학 시험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측 타당도의 검증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는 것으로(Camera & Echternacht, 2000), SAT 점수와 이를 통해 예측하려고 하는 대상 혹은 타당도 기준(validity criteria)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기준은 대학교 1학년 시기의 평점(freshman grade-point average: 이후 FGPA)이지만(Camera & Echternacht, 2000), 대학교 전학년 시기의 평균 평점(cumulative grade-point average: 이후 CGPA) 또는 졸업 여부(Wilson, 1983) 등을 기준으로 활용한 연구도 있다. 많은 연구에서 FGPA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연구 참여 대상자들이 1학년에서 수강하는 교과목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과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 있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는 CGPA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다.

FGPA나 CGPA를 기준으로 하는 예언타당도 분석 연구에서는 대개 .42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김신영 외 3인, 1998), 보편적으로 CGPA를 기준으로 할 때가 FGPA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약간 낮은 상관 관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 교과목의 다양성이나 복잡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상관계수는 꽤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수행되어온 많은 연구들의 메타 분석(meta analysis)을 통해 Burton과 Ramist(2001)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SAT 성적과 CGPA 간 상관계수보다는 SAT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CGPA와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다.

Burton과 Ramist(2001)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대학 입학 전형이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단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평가 방법 또는 도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소수의 대학에서처럼 TOEFL, TOEIC, 또는 TEPS와 같은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점수를 내신 성적 등과 함께 영어 특기자 입학 전형 자료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성적이 대학 수학 능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타당도를 가졌는지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대학에서 영어 특기자를 거의 전적으로 이들 시험의 점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점수가 대학 입학 전형의 신뢰할 만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들 시험의 예측 타당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러한 분석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먼저, 이들 시험에 의해 선발된 영어 특기자 학교별로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기²⁾ 때문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질 집단을 대상으로 예측 타당도 실험을 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다수의 대학에 입학한 영어 특기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 이들 대학의 입학 기준이 제각기 다르고, 이들 학교의 교과 과정과 학점 사정 방법 및 기준의 차이로 인한 복잡성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전형에 의해 입학한 특정 대학생 집단의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점수와 이들의 CGPA 사이의 상관계수를 알아봄으로써, 이들 시험의 예측 타당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앞서, 4절에 제시될 실험 결과 및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음 항에서는 이들 시험의 구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3. TOEFL, TOEIC, TEPS 시험의 구성

TOEFL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1: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A: Short Conversations	30문항
Part B: Long Conversations	8문항
Part C: Short Talks	12문항
Section 2: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Structure: Incomplete Sentences	15문항
Written Expression: Error Recognition	25문항
Section 3: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Passages	50문항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학년도 입학 전형 자료를 보면, 학교별 영어 특기자 선발 인원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처럼 영어 특기자 선발 인원을 20명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학교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이 영어 특기자를 특수재능 보유자에 포함시킨 채 특수재능 보유자의 선발 인원만 밝혔기 때문에 영어 특기자의 선발 인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평균적으로, 대학별 영어 특기자의 선발 인원이 20명 내외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한편, TOEIC은 크게 청해, 그리고 문법 및 독해에 관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영역의 하위 구성은 다음과 같다.³⁾

Section 1: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1: Photographs	20문항
Part 2: Questions and Responses	30문항
Part 3: Short Conversations	30문항
Part 4: Short Talks	20문항
Section 2: Reading	
Part 5: Incomplete Sentences	40문항
Part 6: Error Recognition	20문항
Part 7: Reading Comprehension	40문항

마지막으로 TEPS는 크게 네 개의 영역, 즉 청해, 문법, 어휘, 그리고 독해로 구성되어 있다.

Domain 1: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1: Questions and Responses	15문항
Part 2: Incomplete Short Conversations	15문항
Part 3: Short Conversations	15문항
Part 4: Short Talks	15문항
Domain 2: Grammar	
Part 5: Incomplete Short Conversations	20문항
Part 6: Incomplete Sentences	20문항
Part 7: Error Recognition: Short Conversations	5문항
Part 8: Error Recognition: Short Paragraphs	5문항
Domain 3: Vocabulary	
Part 9: Incomplete Short Conversations	25문항
Part 10: Incomplete Sentences	25문항
Domain 4: Reading Comprehension	
Part 11: Incomplete Paragraphs	16문항
Part 12: Reading Passages	21문항
Part 13: Unity of Paragraphs	3문항

3) TOEIC의 Part 6은 문법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Part 5는 문법 및 어휘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III. 실험

1.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2002년 실험 실시 당시 경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학교의 영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던 3학년 남녀 학생 30명이다. 이들의 입학 당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점수는 상위 5~10% 정도로 이 대학교의 전체 입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점수와 비교할 때 상당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연구 당시 이 학과에서 졸업 요건으로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에서의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험자 집단은 본 연구 참여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절차

2002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피험자들에게 TOEFL, TOEIC, 그리고 TEPS 시험을 차례로 하였다. TOEFL 시험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CBT 형태의 TOEFL 대신 PBT 형태의 Institutional Testing Program (ITP) TOEFL을 2002년 4월 27일에 피험자들이 속해 있는 학과의 한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시험 실시 및 감독은 연구자들이 하였지만, 시험의 채점 및 점수 통보는 ITP TOEFL 시험을 관장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하였다. TOEIC과 TEPS의 경우, 피험자들이 각각 해당 정기 시험에 응시하여, 2002년 5월 26일에는 TOEIC 시험을, 2002년 5월 19일에는 TEPS 시험을 치렀다. 이들 정기 시험을 치른 후 약 4주 후에, 피험자들은 이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공인 점수를 받았다. 한편, 피험자들의 대학 평균 평점(이하 GPA)은 이들의 연구 참여 당시에 파악할 수 있었던 2학년까지의 성적을 성적부에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3가지의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성적과 GPA를 토대로 하여,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구성 요소 및 대학 수강 과목의 분류에 따라 양자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기술했던 통계 처리 결과를 GPA와 각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과의 상관 관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부 성적과 TOEFL 시험 점수와의 상관 관계

학생들의 GPA는 학생들이 수강한 교과목 전체 성적과 영어 기능(skill) 교과목 성적으로 구분하여, 이들 성적과 TOEFL 시험 점수와의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한편 TOEFL 역시 이 시험의 전체 성적과 하위 구성 요소인 듣기, 문법, 그리고 독해의 개별 성적으로 구분하여 이들 점수와 위 두 범주에서의 GPA간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다음 표 1은 학생들의 GPA와 TOEFL 시험 성적을 제시한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데이터 중 먼저 전체 수강 교과목의 GPA와 TOEFL 점수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OEFL 총점 = 0.529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OEFL L/C 점수 = 0.304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OEFL Grammar 점수 = 0.351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OEFL R/C 점수 = 0.544

전체 수강 교과목 GPA와 TOEFL 총점간 상관계수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른 두 시험인 TOEIC 및 TEPS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GPA나 CGPA를 기준으로 하는 예측 타당도 분석 연구가 대개 .42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529의 상관계수는 TOEFL이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그 예측 타당도가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TOEFL의 독해 영역 점수와 GPA 전체 성적간 상관 관계는 0.544로 좀 더 올라가는데, 이는 2절에서 살펴보았던 대학 수학 능력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서 인쇄 매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고 결론을 유도하는 능력이 TOEFL의 독해 영역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살펴볼 다른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독해 영역보다도 TOEFL의 독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난 점은 TOEFL 시험이 지향하는 학문적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영어 기능 교과목 GPA와 TOEFL 점수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OEFL 총점 = 0.643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OEFL L/C 점수 = 0.462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OEFL Grammar 점수 = 0.395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OEFL R/C 점수 = 0.616

표 1
GPA와 TOEFL 점수

Name	GPA Skills Courses	GPA Total Courses	TOEFL Total Score	TOEFL Section Scores		
				L/C	Grammar	R/C
1	3.773	3.43	563	55	53	61
2	3.78	3.83	557	52	57	58
3	4.25	4.18	557	53	58	56
4	3.7	3.59	553	51	57	58
5	3.2	2.66	550	52	55	58
6	3.667	3.49	550	50	55	60
7	3.65	3.28	547	52	55	57
8	3.8	3.53	547	55	55	54
9	3.7	3.29	547	53	55	56
10	2.64	3.66	543	49	55	59
11	3.72	3.7	543	53	53	57
12	2.45	2.41	540	56	51	55
13	3.6	3.27	537	50	55	56
14	3.7	3.68	537	53	49	59
15	3.59	3.76	533	51	53	56
16	3.8	3.56	527	49	51	58
17	3.8	3.51	523	51	53	53
18	3.8	3.44	517	52	48	55
19	3.78	3.79	517	43	58	54
20	2.55	2.64	507	45	53	54
21	3.64	3.25	507	49	52	51
22	3.55	3.79	503	51	46	54
23	3.111	3.07	500	49	46	55
24	3.95	3.69	497	46	48	55
25	3.4	3.3	490	46	54	47
26	3.65	3.53	487	49	50	47
27	2.8	3.06	483	41	53	51
28	3.1	2.61	470	47	51	43
29	2.5	2.69	453	42	48	46
30	1.31	2.35	410	44	46	33

영어 기능 교과목의 GPA는 전체 수강 교과목 GPA보다도 TOEFL과의 상관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인문, 사회, 자연 계열의 여러 다양한 교과목을 배제한 순수 영어 기능 교과목만의 성적이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는 TOEFL 시험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도 역시 TOEFL의 독해 영역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것은 대학에서 개설하는 영어 기능 교과목이 회화, 작문이라는 실용적 영어 구사력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해 능력에 대한 강조와 그에 대한 평가가 주종을 이루는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⁴⁾ 다음 절에서는 GPA 성적과 TOEIC 시험 성적간 상관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2. 학부 성적과 TOEIC 시험 점수와의 상관 관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GPA는 학생들이 수강한 교과목 전체 성적과 영어 기능 교과목 성적으로 구분하여, 이들 성적과 TOEIC 시험 점수간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한편 TOEIC 역시 이 시험의 전체 성적과 하위 구성 요소인 듣기와 독해의 개별 성적으로 구분하여 이들 점수와 위 두 범주에서의 GPA간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다음 표 2는 학생들의 GPA와 TOEIC 시험 성적을 제시한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데이터 가운데 먼저 전체 수강 교과목 GPA와 TOEIC 점수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OEIC 총점 = 0.258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OEIC L/C 점수 = 0.237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OEIC R/C 점수 = 0.217

TOEFL 시험 점수와의 상관계수와 비교해 볼 때, TOEIC 시험 점수와 전체 수강 교과목 GPA간 상관 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GPA나 CGPA를 기준으로 하는 예측 타당도 분석 연구에서 대개 .42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상관계수는 꽤 낮은 편이다. 특히, 독해 영역에서의 상관계수가 다른 영역에서보다도 더 높게 나왔던 TOEFL의 경우와 달리, TOEIC은 듣기 영역보다도 독해 영역에서 상관 관계가 더 낮게 나와 TOEFL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TOEIC의 독해 영역이 TOEFL과 달리 실용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 성격을 지향

4) 영어 기능 교과목 GPA와 TOEFL 점수간 상관 관계 비교에서 특기할 점은 전자와 TOEFL 청해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전자와 TOEFL Grammar간 상관계수보다도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이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 개발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육(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의 틀 속에서 영어 학습을 해온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면서 학문적 읽기 능력에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TOEIC 점수를 토대로 한 대학 수학 능력의 예측은 다소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한편, 앞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기능 교과목 GPA와 TOEIC 시험 점수간 상관 관계는 다음에서 보듯이 전체 수강 교과목 GPA와 TOEIC 시험 점수간 상관 관계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GPA와 TOEIC 점수

Name	GPA Skills Courses	GPA Total Courses	TOEIC Total Score	TOEIC Section Score	
				L/C	R/C
1	3.773	3.43	715	365	350
2	3.78	3.83	830	420	410
3	4.25	4.18	830	395	435
4	3.7	3.59	805	420	385
5	3.2	2.66	840	425	415
6	3.667	3.49	795	360	435
7	3.65	3.28	870	415	455
8	3.8	3.53	845	435	410
9	3.7	3.29	730	350	380
10	2.64	3.66	710	360	350
11	3.72	3.7	860	440	420
12	2.45	2.41	825	440	385
13	3.6	3.27	695	360	335
14	3.7	3.68	800	390	410
15	3.59	3.76	675	335	340
16	3.8	3.56	675	405	270
17	3.8	3.51	655	385	270
18	3.8	3.44	810	455	355
19	3.78	3.79	625	320	305
20	2.55	2.64	680	330	350
21	3.64	3.25	640	345	295
22	3.55	3.79	650	340	310
23	3.111	3.07	750	390	360
24	3.95	3.69	605	305	300
25	3.4	3.3	765	365	400
26	3.65	3.53	570	335	235
27	2.8	3.06	720	325	395
28	3.1	2.61	680	420	260
29	2.5	2.69	450	220	230
30	1.31	2.35	495	215	280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OEIC 총점 = 0.416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OEIC L/C 점수 = 0.497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OEIC R/C 점수 = 0.245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TOEFL의 경우 듣기 영역보다는 독해 영역이 영어 기능 교과목 GPA와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TOEIC에서는 듣기 영역이 독해 영역에 비해 한결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문법과 독해를 구분한 TOEFL 시험과 달리 TOEIC 시험은 이 둘을 하나의 하위 구성 요소로 분류했다는 점⁵⁾과 TOEIC의 독해 지문이 철저히 실용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학문적 읽기 능력에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이 없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GPA와 TEPS 시험 성적간 상관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3. 학부 성적과 TEPS 시험 점수와의 상관 관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GPA는 학생들이 수강한 교과목 전체 성적과 영어 기능 교과목 성적으로 구분하여, 이들 성적과 TEPS 시험 점수간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한편 TEPS의 시험 점수 또한 이 시험의 전체 성적과 하위 구성 요소인 듣기, 문법, 어휘, 그리고 독해의 개별 성적으로 구분하여 이들 점수와 위 두 범주에서의 GPA간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다음 표 3은 학생들의 GPA와 TEPS 시험 성적을 제시한 것이다.

표 3의 데이터간 가운데 상관 관계를 먼저 전체 수강 교과목 GPA와 TEPS 시험 점수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EPS 총점 = 0.184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EPS L/C 점수 = 0.106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EPS Grammar 점수 = 0.315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EPS Vocabulary 점수 = 0.031
- 전체 수강 교과목 GPA: TEPS R/C 점수 = 0.213

TOEIC과 마찬가지로, TEPS의 상관계수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TOEFL에 비해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TOEIC의 경우보다도 상관계수가 약간 덜 나온 것은 TEPS의 문체 유형이 학생들에게 그만큼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TEPS의 문법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5) 좀 더 정확히 말해, TOEIC도 TOEFL이나 TEPS처럼 문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만 구성된 부분(Part 6의 Error Recognition)이 있지만, 다른 두 시험과는 달리 이 부분만을 따로 채점하지 않는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TOEFL의 문법 영역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이와 같이 TEPS의 문법 영역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TEPS의 문법 문제가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치중하면서 언어 사고 능력에 필요한 문법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면이 강하다는 점과 언어 사고 능력이 대학 수학 능력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는 점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TEPS의 하위 구성 요소 가운데 어휘 영역이 상관계수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어휘 영역의 문항 난이도가 타 영역의 문항 난이도에 비해 높았고⁶⁾, 어휘 학습이 대체로 단순 암기와 반복 훈련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학의 일반 과목 수학에 필요한 지적 능력과 제2언어의 어휘 지식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영어 기능 교과목 GPA와 TEPS 시험 점수간 상관 관계는 전체 수강 교과목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TOEIC과 마찬가지로 TOEFL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EPS 총점 = 0.350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EPS L/C 점수 = 0.305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EPS Grammar 점수 = 0.374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EPS Vocabulary 점수 = 0.203
- 영어 기능 교과목 GPA: TEPS R/C 점수 = 0.334

전체 수강 교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TEPS의 어휘 영역이 영어 기능 교과목 GPA와 가장 낮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관 관계는 전체 수강 교과목 GPA와의 상관 관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0.2 정도의 두 상관계수 차이는 제2언어의 숙달 정도는 그 언어의 어휘 구사 능력에 어느 정도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위 상관 관계 중 주목할 만한 점은 TEPS와 TOEIC의 독해 시험 점수와 전체 수강 교과목 GPA간 상관계수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영어 기능 교과목 GPA의 상관 관계에서는 TEPS의 경우가 TOEIC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양호한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계수 차이(약 0.9 정도)는 TEPS와 달리 TOEIC이 문법과 어휘 그리고 독해를 채점 상 하나의 하위 구성 요소로 삼았다는 점과 전자가 후자보다는 제한적으로나마 더욱 다양한 지문(실용문 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글뿐만 아니라 교양과 관련된 글도 포함)과 더욱 다양한 문제 유형을 사용하여 글읽기의 여러 기술을 측정한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6) 학생들의 TEPS 총점 평균은 665점으로 TEPS 2급의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이들의 듣기, 문법, 어휘, 독해 등 각 분야별로 이들의 평균과 급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듣기(258점: 2급), 문법(63점: 2급), 어휘(61점: 2급), 독해(282점: 2+급). 비록 네 영역의 평균 점수가 2급 또는 2+급이지만, 어휘의 61점은 2급의 최하위 점수이다.

표 3
GPA와 TEPS 점수

Name	GPA		TEPS Total Score	TEPS Section Scores			
	Skills Courses	Total Courses		L/C	Grammar	Vocabulary	R/C
1	3.773	3.43	698	270	62	71	295
2	3.78	3.83	677	265	67	68	277
3	4.25	4.18	772	280	76	65	351
4	3.7	3.59	801	319	76	64	342
5	3.2	2.66	808	307	71	77	353
6	3.667	3.49	759	280	68	62	349
7	3.65	3.28	813	330	67	67	349
8	3.8	3.53	770	322	69	71	308
9	3.7	3.29	693	252	68	79	294
10	2.64	3.66	652	253	59	61	279
11	3.72	3.7	765	317	66	60	322
12	2.45	2.41	815	319	72	66	358
13	3.6	3.27	629	244	60	56	269
14	3.7	3.68	728	260	73	55	340
15	3.59	3.76	570	213	64	57	236
16	3.8	3.56	525	193	68	56	208
17	3.8	3.51	693	265	68	60	300
18	3.8	3.44	693	292	70	66	265
19	3.78	3.79	576	207	64	58	247
20	2.55	2.64	642	249	52	58	283
21	3.64	3.25	564	215	54	50	245
22	3.55	3.79	689	274	59	56	300
23	3.111	3.07	638	269	66	64	239
24	3.95	3.69	547	201	47	54	245
25	3.4	3.3	662	247	73	67	275
26	3.65	3.53	605	252	47	52	254
27	2.8	3.06	596	213	68	66	249
28	3.1	2.61	566	250	51	55	210
29	2.5	2.69	547	211	45	46	245
30	1.31	2.35	456	169	52	54	18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대학 2학년까지 얻은 GPA(전체 수강 교과목 GPA와 영어 기능 교과목 GPA로 구분)와 이들이 TOEFL, TOEIC, TEPS 시험에서 얻은 점수(각 시험의 총점 및 하위 구성 요소 점수)간 상관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인 답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입학의 전형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인 TOEFL, TOEIC, TEPS 가운데 만족할 만한 예측 타당도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TOEFL뿐이고 나머지 두 시험은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예측 타당도가 상당히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이들 시험이 지향하는 목적 및 용도와 관련된 때문으로 보여진다. TOEFL 시험은 학문 수학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측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한 시험으로서, 이 점이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타당성에 있어서 TOEFL이 다른 두 시험과 구별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학문 수학이 아닌 실생활의 언어 자료(구어든 문어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험 문제는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적절한 도구라 하더라도, 내용과 형식 면에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피험자들의 영어 기능 교과목 GPA가 이들의 영어 구사 능숙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면⁷⁾, TOEIC과 같이 독해 영역 지문의 소재가 편향되어 있거나 문제 유형이 단순하면 읽기 기술과 전략 사용 여부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문제 유형이 세분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독해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TOEFL은 3가지 유형의 듣기 문제와 2가지 유형의 문법 문제를, TOEIC은 4가지 유형의 듣기 문제와 각각 1가지 유형의 문법과 어휘 문제를, 그리고 TEPS는 4가지 유형의 듣기 문제와 4가지 유형의 문법 문제, 그리고 2가지 유형의 어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분화된 문제 유형과 시험 성적 및 영어 기능 교과목 GPA 사이에서는 상관계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문제 유형의 지나친 세분화는 학생들의 진정한 영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서론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 대학의 특정 전공 분야에서 수학하고 있는 제한된 수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결과에 기초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성적과 대학에서의 수강

7) 이들 학생이 들은 영어 기능 교과목은 영어 회화, 작문, 읽기에 관한 과목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교과목의 GPA는 이들의 영어 네 기능에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교과목 GPA간의 상관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들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예측 타당도를 검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학생들과 가장 유사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의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타당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험자들의 대학 4년간 GPA가 아닌 대학 2학년까지 취득한 GPA를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학 수학 능력을 좀 더 종합적,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 및 영어 구사 능력과 공인 영어 시험 성적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는 이들 공인 시험의 점수를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상당수의 대학에게 이런 전형 방법의 시행에 있어 보다 신중함을 기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신뢰할 만한 어학 특기자 전형 방법이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대학생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표준화 시험이 이해 기능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 기능 능력까지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김신영, 구창현, 임형, 박정. (1998).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 보고 및 분석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현우, 장경숙, 홍영기. (2001).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길라잡이*. 서울: 한국문화사.
- The College Board SAT. (2003). *Q & A: Everything you want to know about the SAT*. Retrieved January 10, 200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ollegeboard.com/sat/html/students/indx001.html>.
- Bridgeman, B., McCamley-Jenkins, L., & Ervin, N. (2000). *Predictions of freshman grade-point average from the revised and recentered SAT I: Reasoning test*. College Board Research Report No. 2000-1. Retrieved January 10, 200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ollegeboard.com/repository/r0001_3917.pdf.
- Burton, N. W., & Ramist, L. (2001). *Predicting success in college: SAT studies of classes graduating since 1980*. College Board Research Report No. 2001-2. Retrieved January 10, 200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ollegeboard.com/repository/rdreport200_3919.pdf.
- Camera, W. J., & Echternacht, G. (2000). *The SAT I and high school grades: Utility in predicting success in college*. College Board Research Notes RN-10.

Retrieved January 10, 200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ollegeboard.com/repository/rm10_10755.pdf.

- Ramist, L., Lewis, C., & McCamley-Jenkins, L. (1993). *Student group differences in predicting college grades: Sex, language and ethnic groups*. College Board Research Report No. 93-1.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Weir, C. (1990). *Communicative language testing*. Hertfordshire, UK: Prentice Hall.
- Wilson, K. M. (1983). *A review of research on the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after the freshman year*. College Board Research Report No. 83-2.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이 현 우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
Tel: (032) 860-7857
E-mail: hylee@inha.ac.kr

이 소 영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
Tel: (032) 860-7856
E-mail: soyoung@inha.ac.kr

Received in May, 2003

Reviewed in June,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ly, 2003